

장보고 길따라 해외문화탐방 및 국제교류

세계인의 기상을 품은 한·중 청소년 교류활동

파라미타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2009년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교류협약을 맺었다. 이 교류활동은 본회 이사인 상인스님이 20여 년 전에 맺은 중국의 양립화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 부주임(서기)과의 인연으로 맺어지게 됐다. 2010년 시작된 교류활동은 올해로 3회째를 맞아 8월 5일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 산둥성 청도, 일조, 교남, 위해서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상인스님을 단장으로 20명의 지도자

와 106명의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8월 5일 청도공항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준비된 버스 3대에 탑승하여 일조시로 이동했다. 일조시에서 직영하는 벽파산장 녹차밭을 찾아 3개 조로 나눠 차밭따기, 녹차 건조하기, 녹차 시음하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따뜻한 녹차가 갈증을 없애줬다. 다음날 교남시에 위치한 제2실험 소학교에서 한중청소년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중국의 소학교는 우리의

초등학교 정도였는데 학교가 대단히 큰데 놀랐고, 그곳 학생들의 훌륭한 공연에 또한 한 번 놀랐다. 중국 전통춤, 노래 등 멋진 공연이 이어졌고 모두가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였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미술과 노래, 연주 등 공연도 이어졌다. 학교에서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 축구, 농구, 탁구, 제기차기, 2인 3각 달리기 등 친선 체육경기를 하며 즐겁게 지냈다. 체육경기를 마칠 즈음 한국학생 2~3인이 한 조가

되어 중국학생 가정방문을 하였다. 반면 지도자들은 교남시에서 별도로 준비해준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한중 교류를 지속하면서 더욱 활성화되길 약속하는 우정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날이 밝아오는 청도시를 관광했다. 청도는 독일의 교차지로 독일식 건물이 고풍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초현대식 건물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어 색다른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청도의 신호산 전망대에서 다양한 건축양식들이 조화롭게 펼쳐진 청도시 전경을 볼 수 있었고, 이어서 5.4 광장에서 청도시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일정으로 위해서로 이동하여 적산법화원과 장보고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장보고기념탑 옆에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파라미타와의 교류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하는 기념식수와 표지석 제막을 하였다. 적산법화원의 음악분수공연이 더위에 지친 우리 일행들을 감로수처럼 시원하게 해주었다. 3회째 한중청소년교류활동을 진행하면서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_ 파라미타 사무국장 조한권



스마트 봉녕사 애플리케이션, 한국 비구니 승가 세계로 비상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승가대학이 '스마트 봉녕'을 2012년 7월 9일부터 전 세계 4억 5천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봉녕사에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세주당 묘엄 명사스님께서 작년 12월 초 열반에 드신 이후 스님을 그리워하는 후학들과 불자들을 위해 스님의 생전 모습과 행적을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한국의 불교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특히 전통적 강원교육을 기반으로 현대식 교육을 접목한 한국승가교육의 전통과 비구니 전문 율학승가대학원을

통해 율장연구에 전력하는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발한 모습을 전 세계 불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예상한다. 봉녕사와 세주당 묘엄스님의 두 카테고리 구성된 스마트 봉녕은 묘엄스님을 꼭 닮은 봉녕사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기품이 느껴지도록 제작되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에서 마켓 다운로드 방식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QR코드만 입력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 봉녕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생생봉녕'을 통해서 봉녕사의 전각과 문화재 및 건축물에 관한 정

보를 입체적인 3D 파노라마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사찰 방문객은 각 전각에 대한 정보나 도량 내에 사시사철 아름답게 피고 지는 꽃과 나무들에 대해 알고 싶으면 도량 곳곳에 자리잡은 QR코드만 입력하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읽을 수 있다.

특히 앱의 로고는 부처님의 사상을 이어받고 이 도량을 거친 많은 학생들이 800년



(봉녕사 대적광전)

간 봉녕사를 굳게 지켜온 향나무로부터 봉황처럼 높게 비상하고, 질푸른 향나무 앞에는 불법이 물들어 전 세계에 승가교육과 계율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감을 형상화하였다. 글_ 봉녕사 재무 정원스님

조계종 어린이포교기구 “동련”

동련은 어린이포교를 위한 각종 불교 행사를 기획·지원하고, 어린이법회 활성화, 어린이지도자 양성 및 교육 사업을 위하여 1986년에 창립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모태로 하여 설립한 어린이포교단체이다.

산하단체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동련동화구연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벗 풍경소리가 있으며, 2010년 4월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단의 공식적 어린이대표기구로 정립되었다.

동련은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권역별 어린이지도자연수, 승가대학연수,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마음성장드림캠프’,



‘배낭 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지역행사로 전국 연꽃문화제, 전래놀이마당, 언어예술제, 전국 어린이연꽃잔치, 어린이찬불울동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어린이포교 교구재, 플래시 애니메이션, 찬불동요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 몽골 해외자원봉사 활동 중

또한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종단의 ‘불교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어린이포교를 위한 국제화 사업을 준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아르와이에르 지역에서 해외자원봉사와 문화교류활동을 하였다. 올해에도 네팔 카트만두 학교, 포카라 보육원, 룸비니 학교 자원봉사 및 문화교류, 나눔 활동을 하

고 있다. 아울러 ‘배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해외 편을 진행하고, 동련의 다양한 사업과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해외 사찰과 연계하여 불교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글 사무차장 유진상
사단법인 동련 051-864-4569
www.dongryun.net



8월6일 Fullbright Camp 미국 청소년들 템플라이프 - 스스로 만든 연등을 불전에 올리고 삼배 후 기념촬영

템플스테이와 ‘정신건강’

‘우리 아이가 마음을 많이 다쳐 건강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모님의 부탁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온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있었다. 첫날 예불문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삼보에 대해 이야기했다. “불교에서 세 가지 보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답이 참 재미 있었다. “목탁이요” “설마! 목탁은 금방 깨지기도 하고 불 붙으면 금방 없어져 버릴 걸?” 다음 답들도 여전히 불교적 상징물들에 머물렀다. “승복?” “절인가?” 그래서 질문을 달리 했다. “네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그랬더니 바로, “정신건강이요” 한다.

아픈 아이의 입에서 나온 ‘정신건강’이라는 말이 왜 문득 가슴이 찢히게 아파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비단 아픈 아이의 바람에 그치지 않는다. 템플스테이를 찾는 많은 신체 건강한 “정신인”들의 공통 모티브로 꼽히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선센터에서 템플스테이 소임을 맡아 한 지 삼 개월 정도 되었나 보다. 산간에

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문득 인연되어 다시 시작한 도시생활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그런 내게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나를 찾아오는 이들은 국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관심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참 고무적이다. 물론 한국 방문의 특별한 체험으로서 템플스테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이와의 대화의 귀결점도 결국은 자신의 삶과 그 속에서 대처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와 여유를 가진 이들이나, 세상에 흥미가 넘쳐날 시기의 환절하고 의욕적인 청년들에게나, 혹은 이미 불혹을 넘은 연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삶의 공통 문제에서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언제나 어린이와 같다. 그래서 절에서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싶든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든지, 잘 모르지만

불교를 매개로 돈독해진 한·일 청소년 교류활동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한일청소년 불교교류는 지난 2003년 첫 교류활동 이후 2007년 파라미타와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 간 교류 협약을 맺고 정례화되었다. 일본 아시아불교도협회는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사찰 주지스님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로 미안마 불교 지원사업과 한일 교류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다. 교류협약 이후 2007년 일본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템플스테이, 한국 가정방문, 한국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듬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본을 교차 방문하였다. 올해는 미야하라 타이 키스님을 단장으로 모두 24명의 지도자와 청소년이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한국 방문에는 후이지 기에이 아시아불교협회 상임이사도 함께하여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일

정을 사전 협의하고, 이후 하반기와 내년도 교류 계획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지원사찰인 봉은사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는 주지 진화스님과 포교국장 덕일스님이 함께 해주셨고, 봉은사 템플스테이 봉사자들의 지도로 발우공양, 예불, 108배, 전통문화체험 등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한국 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 가정 체험과 서울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정방문을 마치고 다시 봉은사에 모여 한국가정 방문에 대한 체험 소감을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복 입기 체험, 한일 언어배우기, 한과체험, 한지 거울 만들기, 제기 만들기 등 친선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무더위가 최고조



(레크리에이션 활동 중)

를 달하던 8월의 날씨도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무더위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땀을 흘렸고 시간이 짧지만 하였다.

글 파라미타 사무국장 조한권

그냥 무작정 명상에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템플스테이 참가동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들이 템플을 찾아와서 이 시간만이라도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자신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성적으로 돌아가는 두뇌활동과 긴장을 멈추고 실질적 의미에서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서 내 역

할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면 찾아오는 이들과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이렇게 열린 대화는 서로를 북돋는 힘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나에게도 신선한 자극제가 된다.

선센터 주변을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도시의 소음도 자신과 마주하려 앉은 집중된 마음에는 잠시... 무음이 된다.

글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초은스님

[활동가 편지] 네팔 세종교육원에서 보낸 영봉스님의 편지

네팔 카트만두 발루와따르 소재 (세종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원)은 2008년 개원 이후 네팔 현지인의 생활과 지위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무료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마스카? 네팔에서 인사드립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 한국은 무더위와 함께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데 우리 식구들은 피해를 안 입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곳도 단 하루가 맑은 날이 없으며 벌써 인명 피해가 여러 명 생겼고 인근 방글라데시는 1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이 일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약 열흘 전에 네팔로 들어왔는데 학원 업무에 하루가 모자랄 경입니다. 150여 명의 학생들이 아침 7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이제는 질서, 예절, 청결, 수업을 임하는 자세 등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이 안정되어 있는 모습에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성이 깊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요즘은 실감한다고나 할까요. 인도나 네팔을 다녀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남 아시아인들의 위생관념이란 그다지 좋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저의 학원 학사 관리는 이렇습니다. 문

화, 예절,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청결, 성실, 시험, 숙제입니다. 100점 만점에 총 열 개 분야를 10점씩 계산해서 등수를 주는데 그 중에서도 예절과 성실 그리고 청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결을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반야심경을 보면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으로 본래는 마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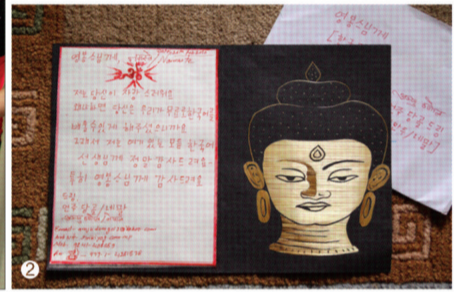
근본 자리를 이르는 말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말을 생활에 접목시킨다고 하며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길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개, 소, 돼지, 닭, 염소 등 모든 동물들이 그것들을 먹이로 삼아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탁발하여 공양을 드신 다음 반드시 손발을 씻고 가부좌를 하셨다고 모든 경전에 써어 있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리야 만무하겠지만 요즘은 석유를 재료로 한 플라스틱이 나와서 그것을 동물들이 섭취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슬퍼 고민하다 이 항목을 넣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하나 지금은 학원뿐만 아니라 그 주위도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속으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진실이 깊으면 반듯이 통한다는 것! 자연은 물러받아 잠시 빌려 쓰고 또 물려줘야 한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도 잔소리만 늘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cafe.daum.net/dreamofhimalnaya 히말라야의꿈

- ① 영봉스님 세종 한국 문화와 언어교육원 수업준비중인 모습
- ② 세종 언어교육원 학생이 영봉스님께 보낸 한글 편지



월드머시코리아, 카자흐스탄 봉사활동 지원



월드머시코리아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15박 16일 동안 2012년 해외사업의 일환으로 동국대 봉사단인 '동국참사랑봉사단'과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장애노인을 위한 컴퓨터 건립을 비롯한 봉사활동과 카자흐스

탄에서 오는 교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사)월드머시코리아가 1천만 원을 지원함은 물론 대표이사 현진스님(여의도 포교원 원장)이 동국대학생 30여 명과 함께 봉사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실천하는 봉사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단순한 근로봉사활동은 지양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하고 실시된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는 매일 오전 2시간 동안 카자흐스탄 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정치와 사회 등에 대한 강의도 듣고, 카자흐스탄 국립대 한국학과 소속 학생들과 한국문화와 사회, 정치 등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함께 한 참사랑봉사단 손재현 부단장(동국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교수)은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현지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해 주신 (사)월드머시코리아의 물질적 지원과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주신 현진스님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동국대와 월드머시코리아의 동창 해외봉사활동은 2011년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사)월드머시코리아 간에 체결된 공동사업협약의 시작이며, 앞으로 해외봉사활동이 나아 갈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천호희망재단, 캄보디아에 교과서 후원

천호희망재단(이사장 월서스님)이 캄보디아 오지마을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정부 교과서를 후원했다. 이사장 월서스님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오지 소말리주 종산 고등학교에 정부교과서 9종 3000권을 후원했다.



기구 등 교육물품도 나눠줬다.

교과서 전달식은 지난 2월 캄보디아 승왕청 승왕 텡봉스님과 벽오지 마을에 국정교과서 지원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갖는 행사였다. 천호희망재단은 협약을 통해 매년 3만6000여 권의 교과서를 오지 마을 50곳 초·중·고등학교에 전



달하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 벽오지 학교의 각급 학생 수는 300~500명 정도이다. 대다수 학교가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천호희망재단은 학교별 학생 대비 50%에서 100%까지 교과서를 지원하고, 학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회수해 차기 학년 학생들에게 물려줄 방침이다.

이사장 월서스님은 프놈펜에 위치한 쁘레아 왕립불교대학에서 마련한 환영식에도 참가했다. 스님은 쁘레아 시아누크 왕립불교대학 총장과 마오 소말리주 부청장, 종산 고등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스님은 지난 4월 이곳에 컴퓨터를 지원했다. 앞으로 50대의 컴퓨터를 더 후원할 계획이다.

글 불교신문 홍다영 기자

(사)월드머시코리아 070-4411-9136

미서부 지역, 한국불교 활성화 첫걸음 시작

8월 4일 LA 정혜사(주지 석타스님)에서 미국 서부지역 내 한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모임은 석타스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스님이 미주지역 순회법회의 일정으로 미동부와 중부·캐나다 방문을 끝낸 후, 서부에 도착하여 회의에 동참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주지역 전법을 위한 국제전법단 결성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미동부해외특별교구에 이어서 중서부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도 지속해서 공유하기로

결의하였다. 해외에서 포교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은 아직 미비하지만, 이번 모임을 토대로 중서부에서 한국불교가 꽃피울 날이 올 것이다. 한국에서 온 계성스님 등 4명의 스님을 포함하여 정혜사 석타스님, 고려사 묘경스님, 선각사 선학스님, 태고사 무량스님, 샌프란시스코 보리사 형전스님 등이 동참하여 뜻을 같이했다.

글_ LA 선각사 주지 선학스님



앞줄 왼쪽부터 정법스님, 석타스님, 계성스님, 선학스님, 뒷줄 왼쪽부터 묘경스님, 무량스님, 형전스님 등

미서부지역, 청년 불자 모임 TARA's Second Annual Party

8월 11일 토요일, 팰리 시티의 한 주택에서 자그마한 파티가 열렸다. 이 파티는 북가주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타라(TARA)의 더 세컨드 애뉴얼 파티(The Second Annual Party) '좋은 인연 만들기'를 모토로 기획되었다. 지난 1월에 가진 신년법회에서 창단 때 했던 파티를 다시금 열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를 강행한 것이다. 포스터 작업을 마친 타라는 북가주 이외 다른 주의 사찰 및 불교단체에도 내용을 홍보했다.

한편, 후원 단체인 자비봉사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를 지원했으며, 장소 섭외·장소 꾸미기, 음식 마련 등으로 파티를 후원하였다. 보리사에서는 법사를 맡은 형전스님과 비구니 스님 두 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1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서로에 관해 소개하였고, 자비봉사회에서 마련한 음식과 타라에서 마련한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담소도 나눴다. 첫 만남이라 어색하기도 했으려면 타라의

기존 회원들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 즐겁게 지냈다. 2부는 타라의 회장인 안정열군의 진행으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준비된 많은 선물은 게임마다 1등 한 사람들과 참여해준 모든 분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님들이 좋은 인연을 맺으라는 의미로 오색실을 팔복에 꽂 묶어 주기도 했다. 3부는 다시금 자리로 돌아와 와인과 함께 다하지 못한 담소를 나누며 더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타라에서 준비한 기념품 머그컵을 참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였다.

파티가 끝난 후,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마련한 뒤풀이 자리에 거의 빠진 사람 없이 참여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으며, 타라는 아마도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북가주에 사는 청년들의 좋은 인연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글_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LA 태고사, 주지 무량스님 진산식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태고사는 8월 12일 신임 주지 진산식을 겸한 특별법회를 가졌다. 제5대 주지 무량스님 진산식 및 조계종 전법단장 계성스님 초청 법회가 내·외빈과 신도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번에 취임한 무량스님은 한국 스님으로 창건주인 미국인 무량스님과는 법명이 같다. 이어 미주지역 포교 현황 파악 및 전법순회 중인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진산식에서 무량스님은 앞으로 한국적 이미지가 강한 태고사를 교포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LA 태고사 +1-661-822-7776

호주 시드니 정법사, 스님들을 위한 해외포교 연수 프로그램

국제화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인과 나누는 것이 한국불교가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국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므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없다. 해외 체험(연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시드니 정법사에서는 해외 체험이 필요한 스님들을 위해 스님들이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총 4채의 건물이 있어서 거주 공간이 넉넉한 편이다.

호주는 각 학교, 병원, 교도소 등에 파견할 불교 법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호주불교연합회(The Buddhist Council of NSW)에서는 호주 사회에서 요

청하는 기관에 파견할 불교 법사(teacher) 교육을 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반드시 불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주에는 호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 호주 현지인들을 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서양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원대한 꿈을 가진 스님들이 있으면 정법사로 연락하길 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정법사 메일(jongbopsa@hotmail.com)이나 전화(+61-2-9642-7672)로 하면 된다.

글_ 호주 정법사 유영재 거사



법타스님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앞줄 한 가운데)하는 모습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 '종교평화상' 수상

미주종교평화협의회(KRCP·상임대표 양윤성) 주최 제3회 종교평화상 시상식이 7월 27일 원불교 LA 교당에서 12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종교평화상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인권, 사회운동,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 등의 평화활동을 펼쳐온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에게 수여됐다. 주최 측은 "법타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불교계 성직자로서

남북교류활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종교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을 받은 법타스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불교(종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에는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에서 특별법문을 통해 원각사의 성공적인 대각 불사를 기원하면서 지혜의 법문을 들려주었다.

제공_ 동국대 정각원 이민기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청소년 한국문화체험 나들이

재미교포 2, 3세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의 전통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스님)의 '미동부 청소년 한국문화체험연수단'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경주 불국사, 합천 해인사 등을 방문하여 한국불교의 진수를 만끽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뉴욕불교신도회 차원에서 해오던 사업을 미동부 해외특별교구 출범 이후 교구차원에서 진행하여 의의가 크다. 뉴욕불교신도회의 주관으로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하고,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성스님과 운성, 청하, 원경스님 등이 실무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첫날 총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무국장 광전스님은 "미동부 지역 교포학생의 총무원 방문을 환영한다. 한국문화와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스님으로부터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선물한 단주와 조계종 영문 소개 책자, 템플스테이 홍보영상 등이 담겨 있는 USB 등을 전해 받았다.

또한, 석굴암과 불국사를 참배하고 황룡사지, 분황사지, 천마총, 안압지, 첨성대 등에서 불교문화유적에 대해 공부했다. 다음으로 해인사, 자비선사, 화운사에서 목판인경 체험 및 명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했다.

연수단을 인솔한 고병희 뉴욕불교신도회 부회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자라는 자긍심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학생들과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미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_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박종학 팀장



뉴욕불광문화학교, 신임교장에 일진스님

8월 12일 뉴욕불광한국문화학교 제2대 교장으로 일진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장이자 불광한국문화학교 재단 이사장인 휘광스님이 임명장을 전달했다. 뉴욕불광문화학교는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하는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화(+1-646-837-1388)나 메일(bulkwangkcs@gmail.com)로 신청하면



글_ 뉴욕 불광선원 총무 문종스님



(굴굴사에서 참선 모습)

호주 보리사, 불사의 큰 원 세워 힘차게 정진

보안스님이 호주 시드니에 머문 것은 9년이 넘었고 보리사가 태동한 것은 4년이 되었다. 스님은 처음에는 아파트를 세내어 살면서 호주에 유학 오는 학생들과는 방을 나누어 쓰고 정성껏 돌봐 주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인연이 되어 중국 절에서 법당을 빌려 쓰며 한국 교포 불자들의 신생활을 지도하였다. 이때 직접 번역한 금강경으로 신도들과 공부도 하였고 참선 지도도 하였다. 앞으로는 화엄경도 번역하며 공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님은 신도들 교육 외에도 3년 전부터 시드니에 있는 각국 절의 스님들과 연합하여 버우드파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문

화행사를 열어 한국문화와 불교를 알리면서 세계 불교와의 교류를 도모해 왔다. 요즘에는 이 문화행사를 시 공식행사로 지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시드니 교도소를 돌려 새소자를 교화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그동안 머물렀던 중국 절이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갑자기 오갈 곳이 없어 신도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에 보안스님은 새로운 원력을 세웠다. 한국 교포 뿐만 아니라 호주인들도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을 낸 것이다.

현재 작은 집을 빌려서 소박하게나마 부처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불사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맨손으로 시작하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누군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보안스님, 이를 통해 신도님들과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절 없는 절 보리사를 굳건히 지켜왔던 보안스님, 스님의 원력이 세계적으로 꽃피길 바라며, 불사의 원도 곧 성취하기를 기대해 본다. 호주 보리사 070-8235-5870

보안스님은 보리사 터 마련을 위해 매일 한국 돈으로 1000원 호주 돈으로 1불 불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함께 어울려 운동회 마치자 초보불자 마음까지 열어...

롱아일랜드 청아사주지 석담스님에서는 신도회와 공동으로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운동회를 열었는데 초보 불자가 느낀 체육대회에서의 소감은 한마디로 "신나게 놀았다."이다. 9살 아들은 큰 형들과 같이 운동해서 좋았다고 하고, 7살 아이는 땀이 흠뻑 젖어서 좋았다고 하고, 강아지는 아기들의 관심을 독차지해서 기쁜 하루였을 것이고, 남편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나는 실컷 소리치고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쉬지 않고 게임을 하는 노보살님과 처사님들, 부끄러워 뼈죽거리는 우리 애들을 다정하게 챙겨준 누나와 형들, 음식 준비하는 보살님, 심판 보는 스님 두 분, 마치 그림 같은 날이었다.

모처럼 즐겁게 놀았던 하루를 되돌아보면, 그 속에 세련된 무언가가 있었던 듯하다.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이다. 절에서는 말 걸기도 조심스럽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던 새내기에게 운동회는 내가 청아사 신도라고 믿게 하였다. 야외에서 놀다 보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이게 되고, 덕분에 쉽게 마음까지도 열게 된 것 같다. 아마 스님께서도 내가 얽힌 줄로 아셨겠지만, 그게 아닌 것쯤은 눈치 채셨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절에 다니던 때가 지금 내 둘째 아이 나이였을 것 같다. 버스도 없는 산골 마을에서 자란 나는 엄마를 따라 백련사에 다녔다. 절에 가면 맛있는 과일과 떡이 있었고, 함께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었던 초연스님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셨다. 초파일에는 연등불을 켜고 끄는 심부름을 했었고, 가끔 108배를 올렸던 기억도 난다. 30여 년이 넘도록 들고 돌아온 지금, 절의 공양음식이 맛있으며 따라나서는 내 아이들을 통해, 잊고 있었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머리로 생각지 않고 부처님께 다가가는 내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어렸을 적 기억 덕분일 것이다. 이런 것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나? 묘한 인연으로 청아사를 알게 되고, 저절로 마음의 고향을 찾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아이들도 먼 훗날 지금을 추억하기를 바라며, 어디에 있든지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속 깊은 불자로서 자라기를 기도한다.

글_ 청아사 신도 손명선 불자

미국 불자들, 세상을 향해 삶의 길을 묻다

The Buddhist Geeks Conference 2012

고대 종교가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흐름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강연과 열린 대화, 수행이 어우러지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불자대회(The Buddhist Geeks Conference, BGC)'가 8월 9~11일 콜로라도대학대학기념관에서 3일 동안 개최되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이 대회를 기획한 빈센트 혼은 참가자들이 불교, 현대인의 삶,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의 기술 혁신 등에 대해 파고들수록 더 심층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나로과대학에 다닐 때 팟캐스트로 불자모임을 시작한 혼은 현대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관련 질문들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써 이 대회를 기획했다고 한다. 혼은 "우리는 과학기술과 불교, 마



음수행과 이러한 영역들의 융합 지점에서 활동하는 최고 사상가들을 초대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이 이 대회의 주제이지만 참선과 미래 불교에 관한 창조적인 대화가 오갔다. 혼은 또한 "작년 L.A. 대회에 이어



두 번째 대회가 불더에서 열려 뜻 깊다. 게다가 콜로라도 대학기념관은 위대한 인터넷의 발원지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행과 신경과학을 융합하는 새로운 영역인 명상과학과 같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패널들은 수행과 바깥 세상의 조화, 사회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방법들에 대해 상상의 나라를 떠서 토론했다. 빈센트 혼은 대회 기간 모든 활동에서 가

능한 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문을 가질 것이냐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말했다. 세계화 시대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교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고대의 수행을 현대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혁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종교를 혁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현재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혼은 묻는다. www.dailycamera.com

스리랑카, 불교 인구 61%로 감소 비윤리적 개종에 대한 보고서 출간

"종교의 자유란 스스로 선택한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이므로 종교를 바꾸는 것은 어떤 압박, 영향, 공포, 속임수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스리랑카불교위원회(ACBC)가 불자의 다른 종교로의 비윤리적 개종에 대해 조사토록 해서 제출된 보고서 제 6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불교도우회 부회장 아난다 박사의 후원 아래 콜롬보 ACBC 홀에서 7월 2일 출판됐다. 위원회는 비윤리적 개종을 막는 법안을 정부법안으로써 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기독교 종교위원회가 법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대한 것에 주목하면서 불교단체가 국가적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도전을 바로 인식하고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개개의 국회의원에 압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직간접적으로 비윤리적 개종 유도 시설을 제공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정부기관의 활동금지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투자위원회와의

투자협약 하에 스리랑카에 들어온 외국 회사의 투명한 활동에 대한 엄격한 조건의 구체적 적용도 포함된다. 스리랑카 방문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비자 발급 필요성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비자가 사회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발급되었지만 전도에 전념 하느라 비자가 취소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위원회가 조사 한 바 비윤리적 개종의 주원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경제 지원을 통한 유혹이다. 자금의 상당량이 외국과 관련된 곳에서 제공되었다. 불교공동체나 불교단체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만한 경제력이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보고서는 비윤리적 개종으로 불자들에게 행해지는 악의에 찬 중상모략과 같은 갈등상황의 발생을 경고했다. 켈라니아대학 다마라타나 교수는 이날 출간기념행사에서 스리랑카 불자가 전체 인구의 61%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조사할 때는 51%가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스리랑카가 점점 불교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난다 박사는 불자들이 지난 60년 동안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현재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제한의 외국 자본이 선교사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청년들을 개종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리랑카의 비윤리적 개종문제에 대한 관심을 세계불교협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CBC 회장 자가트는 2006년 6월 11일에 퇴임한 대법관 사라트를 위원회에 선임했다. 위원회는 4년 동안 전국을 다녀 스님과 재가자들의 비윤리적 개종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해 2009년 첫 보고서를 냈다.)



(스리랑카 고대도시 폴로너루바 부처님)

실라위말라스님, 런던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

2012런던 올림픽에서 런던 불교정사 실라위말라스님이 올림픽공원 올림픽마을 선수 500명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다. 정신적 위안은 대다수 사람들이 찾는 보이지 않는 내적 힘이다. 때로 그 힘은 위대한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도 하고 무엇을 성취하게도 한다. 그래서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참가자들이 세계 5대 종교인 불교, 힌두교, 기독교, 회교, 유대교 신자들이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형 장소를 제공했다. 올림픽마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스리랑카 출신으로 런던에서 불교정사를 운영하는 실라위말라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올림픽마을에서 막중한 소임을 보고 있다. 스님은 4년 전 올림픽 불교지도자 소임에 지원했다. "구두시험과 서면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본 후 올림픽마을 근처 해크니에서



몇 가지 교육을 받아야 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세미나도 참석했다. 7월 16일부터 올림픽마을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스님은 말했다. 만이천 명의 참가자 중 중국, 홍콩, 한국, 태국 등에서 온 5천 명 이상의 선수들이 불자들이다. 또한 스님은 "난 이 일을 의무라기보다 특권이라 생각한다. 영국에 사는 스리랑카 교민이나 스리랑카에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www.thebuddhadharma.com

국제불교 단신

◆ 태국 아산하 부처, 스님들께 공양하는 날

태국 전국의 불자들이 8월 2일 아산하 부처(Asarnha Bucha Day)를 기념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방콕에서는 정부 대변인 타야 티파수완의 주재 하에 쇼핑몰 아마린 플라자에서 스님 199분께 공양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아산하 부처는 음력으로 8번째 달 보름인데 올해는 8월 2일이다. 이 날은 초전법륜경, 부처님께서 5비구에게 최초로 설법하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선을 수행하다

빌 클린턴은 심장병 발병 후 건강한 삶을 위해 선수행과 채식을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너무 바쁜 삶을 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 빌 클린턴(65)은 선에 대해 제대로 배우기 위해 스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독경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선 수행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로 꽉 찬 삶을 살고 있고 내 자신이 변한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조명

라다크 축제, 전통문화와 불교 유산 세계에 알려

마하보디 국제선센터와 나브나란다 사원 공동 주최

라다크에 있는 마하보디 국제선센터(MIMCO)와 나브나란다 사원(나란다대학에 근거한 대학)이 2012년 9월 3~9일 요가, 선, 문화와 전통, 예술, 영화, 이야기가 있는 국제축제를 라다크의 레에서 연다. 이번 축제의 목적은 라다크에 사는 여러 부족들의 다양한 문화와 고대의 찬란한 불교 예술과 철학을 저명한 스님과 학자, 세미나, 영화, 문화 공연, 사진전시회, 수공예와 음식 축제를 통해 알리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지 2,600여 년, 불교 지혜와 자비 사상을 세계적으로 증장코자 한다.

이번 축제는 매년 열리는 라다크 축제와 연계하여 계획되었는데 라다크는 고대로부터 이어진 유구한 불교역사가 전 세계적

으로 유명하다. 2011년 9월에 열려 국내외 참가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 냈던 작년의 축제는 여러 면에서 획기적이었던 행사였다. 2012년의 축제에서는 다양한 부족들의 문화와 전통, 불교 사상과 철학, 영화로 그 저변을 넓혀 라다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공유하는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려 한다.

라다크는 지질학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모두 독특한 곳이다. 지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각변동에 의해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아시아 대륙이 상승하여 바람과 물에 의해 현재 우리가 아는 형태의 땅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라다크의 사회적인 모습도 인도, 중앙아시아, 티벳, 몽고와

몽고 너머 지역의 위대한 문명들의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경험해야 했던 격변의 결과였다. 돌에 부처님 말씀을 세긴 마니석을 쌓아 만든 사찰과 암자가 전 지역에 산재해 있어 라다크가 불교의 요람이며 이곳을 통해 수많은 선지식들이 티베트와 몽고, 러시아까지 옛길을 따라 삼보의 소중한 가르침을 실어 날랐음을 말해 주고 있다.

9월 축제는 관광객들, 참여자들이 라다크의 역동적인 지역 문화와 다양성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모든 행사를 흥겨운 잔치로 만들 계획이다.

영화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관념에 긍정적으론 부정적으론 나이나 피부색, 종교와 지역에 관계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영화의 교육적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좋은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잘 활용되어야 한다. 국제불교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고 뉴욕, 런던, 방콕의 경우 이름 있는 영화제로 성장했다. 매일 불교 사상과 전 우주적 인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여러 영화들이 상영될 것이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배우와 감독을 포함한 영화 관계자들과 관객들 간의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의 이틀간은 영화와 다큐멘터리 중 최고의 우수작들이 상영되는데 앞으로도 매년 이어져 세계적으로 시선을 끄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9월 축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제작자이자 사진 작가인 베노이 벨이 19개 나라의 불교 예술과 문화 유산에 관한 사진 여행식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불교의 전파”가 상영된다. 매년 마하보디 국제선센터에는 요가와 선 수행을 하러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프로그램은 5일간의 모인 과 수행으로 진행되며 요가와 불교 수행 분야에서 최고의 스님들과 지도자들이 지도한다. 작년 축제는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 나라 대표가 참석하는 등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 성대하게 치러졌다. 스승이 없는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스승의 안내와 지도를 통해 얻어지므로 9월 축제에는 라다크와 인도, 세계에서 온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축제 기간 동안 날마다 초청된 불교학자와 전문가들이 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수행 등 여러 측면에서 불교를 말할 것이다.

라다크의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소와 립빠’로 알려진 전통적 약학체계도 소개된다. 이 약학은 라다크에서 시킴, 아르나찰 스타데쉬, 티벳, 네팔, 부탄, 몽고, 러시아에 이르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축제 기간에 전통 의사들이 영적인 치유와 치료를 위해 무료 진료와 약 판매를 한다. 축제에서 눈에 띄는 행사는 책 전시회이다. 지역의 출판사, 도서관, 작가들이 초청될 것이다. 축제를 더 빛내기 위해 고대 경전과 탕가, 버터 조각 전시가 있다. 또한 라다크의 여러 사찰과 문화 유적지 방문 기회를 만들어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것이다.

인도는 인류문명뿐만 아니라 불교가 발생한 곳이다. 9월 축제는 라다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지식을 세계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인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The Buddhist Channel [2012. 8. 8]



▼ (좌)마하보디 국제선센터 원장 상가세나스님 (우)라다크에 있는 리키르 사원

고통, 좋은 일 그리고 삶

삶의 모든 고통이 꼭 필요한 것일까? 고통 없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수월할까? 누구도 살면서 고통과 위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런 경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은 엄연한 삶의 일부이다. 고통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내면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1 고통이 삶의 자연스런 일부라고 인정하자.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감정의 소용돌이는 단지 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받아들이 다음 고통으로부터 배워 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2** 고통과 기쁨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들은 상호의존적이고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빛과 어둠이 없으면 사진도 그림도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아름다움과 색깔을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비이다. 그러므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문제와 위기가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빛과 어둠 없이 사진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생각을 더 연장하여 보면 삶

자체도 죽음에 의존하는 것 같다. 죽음 없는 삶은 없다. - 반대로 삶이 없이 죽음도 없다. 이렇게 알아간다면 삶이라 불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또한 나 자신을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들도 잘 알게 된다.

3 깨어 나자, 지혜로워지자.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지혜를 쓰자. 고통은 깨어나려는 어떤 신호처럼 작용해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 고통을 당해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단지 고통을 짚싸게 없앨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어난 감정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있으며, 그리고 지혜 없는 마음은 없다. 지혜를 의미 있게 써서 빛과 그림자 없는 그림을 보려하기보다는 삶의 본질을 알아가 보자. 그러나 본래의 지혜를 꺼내기 위해서는 관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음에 도움 되는 어떤 것이라도 꺼낼 줄 알 때 자신을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다. 산을 움직일 필요는 없다. 단순하다. 우리가 할 것이라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이다. 고통을 삶이라는 모자이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때 삶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고 삶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된다.

Karmapa Thaye Dorje, The Huffington Post

불교 인구가 늘고 있는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축제 모습



코스타리카 -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아메리카의 천주교 교회는 신도들이 기독교 교파나 다른 종교를 찾아 떠나는 것을 목격해 왔다. 전문가들은 천주교가 주로 개신교의 막강한 경쟁력과 너그럽지 못하고 경직된 자세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족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한다. 중앙아메리카는 이슬람이나 불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조세와 카트리나 부부는 3년 전 불교로 개종했고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한다. 개종 이유에 대한 질문에 조세는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신부님은 단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보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다였다. 이때가 내 종교에 대해 의문을 갖고 다른 종교를 찾기 시작한 첫 계기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조세는 결국 불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이슬람도 기독교도 알아보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불교가 뭔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불자들이 어떤 일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선 수행이 우리 삶에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어떤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간단한 호흡법을 배웠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었다. 불교 호흡법이란 도교의 호흡법인 ‘원숭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고요하게 한다.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현재의 마음에 머물게 된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되면서 일상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나 가정문제에 침착하게 중심을 잡아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 10만 명 정도의 불교 수행자가 있는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 불자가 많다. 코스타리카 불교는 19세기 초 중국 이민자들을 통해 들어왔다. 지금은 산호세에 불교단체가 여럿 있다.

The Costa Rica News [2012. 8. 5]

마주협, 두 번째 해외봉사활동 “신짜오 베트남 앤 코리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스님)는 “신짜오 베트남 앤 코리아” 해외봉사단을 조직하여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베트남 해외봉사는 지난해 스리랑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의료봉사, 화장실 신축, 지역주민 생필품 후원, 학교 및 시각장애인시설 학용품 후원 등과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베트남의 소외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간 봉사단은 총 57명으로 꾸러졌으며, 한국에서 간 봉사단 49명과 현지에서 8명이 합류하였다. 봉사단에는 의료봉사단, 대학생, 고등학생, 마주협 회원단체 실무자 등 다양하게 동참하였으며, 현지봉사단은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하였다.

봉사 일정은 타인호아성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3개의 보건소와 5개의 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용품 지원과 4개의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페인트 및 벽화를 그렸다. 또한, 시각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교육기자재를 전달하고, 흐영터를 방문하

여 보시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만남도 가졌다.

해외봉사 단장인 도제스님은 “올해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서 더욱 뜻깊은 봉사활동이 되었고, 특히 의료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또한, 화장실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한편으로는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아쉬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봉사자로 참가한 김포마하이주민센터 조종술 사무국장은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 벽화 및 페인트칠하기가 힘이 많이 들었는데, 마치고 나니 너무나 뿌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한국으로 내년에 일하러 간다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기로 약속했다” 했고,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김완숙 사무국장은 “베트남에서 예전에 센터로 자주 찾아왔던 베트남 근로자가 어떻게 소식을 알고 나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 좋았다”며 국제적인 인맥을 과시하였다.

베트남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떠난 마주협의 두 번째 해외봉사 활동은 8월 17일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원만 회향 하였다.

마주협 사무국 02-720-7095

- ① 하노이 공항에서 기념 촬영
- ②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 ③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 ④ 새로 지은 깨끗한 화장실
- ⑤ 묘청스님이 그린 화장실 벽화



“제1회 스리랑카 크리켓 전국 김포 대회” 성황리에 마쳐 ...

대한크리켓연합 김포창립준비위원회에서 주관·김포스리랑카공동체 주최·김포마하이주민센터 외 10개 기관이 협찬한 ‘제1회 스리랑카 크리켓 전국 김포 대회’가 한낮 더위 38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8월 5일(일요일) 양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식전 행사로 20인조 마칭밴드 ‘시몬’팀의 공연이 있는 후 스리랑카 전통 행사의 개회식을 알리는 “오일램프” 점화식으로 역사적인 크리켓 김포전국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에는 스리랑카 크리켓 10개 팀 120명의 선수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대회 개회 축하 차 비공식 참석한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 차관과 주한 스리랑카 부대사가 끝까지 남아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번 대회를 함께 치른 준비팀의 자푸스리씨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크리켓 경기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다양한 국가팀이 참석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스리랑카 이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 031-985-0654



(오일램프 점화로 경개시작)



(스님께 참가대중이 공양물을 올리고 있다.)

방글라데시 바나반테 큰스님 대열반을 기리는 대중공양의식 열려

지난 8월5일 조계사에서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와 재한중머인연대 주최로 사다나난다 마라테라 큰스님의 대열반을 기리는 대중공양법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대중공양법회는 지난 1월30일 열반하신 ‘사다나난다 마라테라’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 명의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참석하여 2시간 동안 추모의식, 동영상 관람, 대중스님께 공양 올리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다나난다스님은 1920년 태어나 1949년 출가했다. 스님은 1974년부터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 사는 소수 민족 불자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셨다. 평소 스님은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시인으로도 활동했다. 스님이 머물렀던 라즈바나비하르 사찰은 현재 불자들의 성지순례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번 법회를 준비한 방글라데시 출신 장지성씨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항상 간직하며 지내고 있고, 특히 오늘 대중공양의식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법회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조계사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방글라데시법당 보타사 031-983-6764